

콜로라도, 건설·건축자재에 허용 가능한 환경영향 기준 제시

<https://leg.colorado.gov/bills/HB21-1303>

<https://coloradosun.com/2021/10/08/embodied-carbon-labels-colorado-construction-materials>

<https://rmi.org/colorado-passes-embodied-carbon-legislation/>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가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건설·건축자재에 명확한 환경영향 기준을 설정하는 ‘Buy Clean Colorado Act’를 시행한다.

이 법에 따르면 콜로라도 건축국(Office of The State Architect)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공공건축, 도로 등 공공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자재별로 허용 가능한 환경영향 정도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허용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자재는 아스팔트·시멘트·유리·강화스티플 등이며, 그 수치는 각 자재에 대해 공인된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데이터베이스와 평균 수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콜로라도 건축국과 교통부는 공공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4년마다, 공공 인프라 자재는 2027년부터 4년마다 허용 수치가 적절한지 검토해 조정하게 되나 ‘수치를 상향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공건축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공공 인프라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기준일 이후 콜로라도 건축국과 교통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의 계약자는 법에 명시된 자재에 대해 EPD를 제출해야 한다. EPD 제출 전에 계약자는 사업에 해당 자재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명시된 자재의 EPD 제출이 불가능한 일부의 경우, 계약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EPD 제출이 가능한 대체 자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콜로라도 선(The Colorado Sun)>은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마치 식품에 나트륨, 당류, 지방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50%, 2050년까지 90% 줄이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의 EPD 라벨
출처: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홈페이지. <https://living-future.org/declare/declare-about/#declare-2-0>(검색일: 2021.12.8.)